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세션 13, 예수님과 열두 제자, 누가복음 9:1-27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예수와 열두 제자, 누가복음 9:1-27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루가 복음을 살펴보았고 꽤 흥미로운 몇 가지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루가는 항상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주는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이전 토론에서 우리는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의 일부와 특히 그가 특정 사람들과 가진 기적적인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루가가 예수님과 열두 제자에 관해 모은 몇 가지 구체적인 경우와 선교 여행을 가거나 선교 활동에 파견하는 것, 그들이 돌아와서 때때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강의에서 나중에 볼 몇 가지 일을 포함하여 일어날 광범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을 살펴보입니다. 9장 51절 이후에야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와 열두 제자. 이 세션에서는 제가 ninefold에서 설명한 몇 가지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열두 제자의 사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며 사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헤롯은 이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호기심, 아니 당혹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에 대해, 그리고 그가

이 특정 헤롯이 이전에 죽인 세례자 요한인지에 대해 재빨리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 다음,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 넘어가서 4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고 누가 마태오와 마가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따라가고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고, 아마도 이 강의에서 변형에 대한 이 특정 세션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세션에서 나머지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9장 1절에서 6절까지 열두 제자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 싶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들을 열두 사도라고 부르셨고, 때로는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9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두 사도를 불러 모아 모든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두 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마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리고 그들은 떠나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곳에서 병을 고치니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셨다면, 8장의 이전 구절에서 계속되거나 연속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방금 예수님과 기적적인 만남, 심지어 죽음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유를 받는 일, 그리고 폭풍을 진정시키고 인간의 조건과 자연이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심각한 사고의 역전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 따르면,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질병을 고치고, 심지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자기 파괴에 빠지는 것을 돕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평온함을 느끼고 제자로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누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도들에게 사명을 내리셨을 때, 그분은 또한 누가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언급할 때마다 함께 언급하는 어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선포와 치유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와 치유는 함께합니다.

원한다면, 초자연적인 활동이나 일종의 만남으로 뒷받침된 왕국 메시지의 언어적 표현이나 표현. 왜냐하면 누가는 하나님 왕국의 현현과 현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9장 1절과 2절에서 보내신 것도 바로 그 정신에서이다. 그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치유라는 말을 덧붙이셨다.

몇 가지 관찰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를 발견합니다. 저는 1장과 2장의 세 동사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어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리더들에게 문화 지능을 가르치거든요. 문화에서 관찰한 것 중 하나는 서반구, 특히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지역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주로 명사를 배우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언어의 발달은 종종 명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흥미롭게도, 학자들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pericopes나 사건에서 명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다수 세계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우리는 문화가 동사에 집중하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휘 면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들은 동사를 배웁니다. 그들은 사물의 이름이 아니라 하는 법을 배웁니다. 해석의 원칙 부분에서, 저는 이 이론을 시험해 보았고, 미국, 이집트, 가나, 나이지리아에서 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16을 화면에 띄웠고, 저는 여기에서 자란 제 미국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동사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동사를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누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문화를 연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문화와 우리의 현대 문화를 연결하여 우리가 현대적 지평을 통해 고대 문화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가 전달하는 내용을 여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저희를 따라오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 중 일부를 스스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살펴보고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임명하실 때 사용하신 핵심 동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매우 신중하게 표현하여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거의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는 동사를 사용해서만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대 세계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강조점이 동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명사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사와 동사가 행동을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동사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매우 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또 다른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그리스어 단어는 he gaved on them일 수 있습니다. he gave them, so he called them together, and he gave them.

그가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립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가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져올 때, 그는 권능과 권위라는 단어를 함께 가져올 때 거의 항상 말로 선포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는 그들에게 이것을 주셨고, 그런 다음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들을 장비하고 능력을 주신 후에, 그는 그들을 보내어 대신 사역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될 선교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여전히 주제,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야 할 중심 메시지여야 합니다. 10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비록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메시지를 몰래 넣을 방법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부르고, 주고, 보냈습니다. 권능 부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권위와 능력의 표현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관여한 제자나 예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4장 36절, 5장 17절, 6장 19절, 8장 46절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함께 모을 때, 그는 그것이 치유와 악마의 활동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할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어 그가 해오던 일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의 일부는 무엇을 포함할까요? 그것은 사명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왕국을 포함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거나 선포하고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비서구권의 일부 사역에서 예언적 사역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때때로

예수님의 사역을 치유 사역이나 일종의 예언적 활동으로 특징지어 복음의 내용을 구두로 선포하는 것을 거의 배제하거나 소외시켰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예수의 사역에 대해 말한 것과 상반됩니다. 누가는 예수가 열두 제자를 여기로 보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내용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언 사역이나 치유 사역과 같은 어떤 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사람들이 선포자들과 함께 오는 권능과 권위로 왕국의 메시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행위로 그들의 일을 검증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물류는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볍게 여행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모든 큰 짐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 현대 항공사의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킬로와 파운드에 대한 제한이 선교사들에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하고 겸손하게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동안,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남겨야 합니다.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은 문화적 상징적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특정 장소에서 나오는 먼지와 어울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강한 거부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그 장소의 빛을 거부할 정도로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면, 그들을 그대로 거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아주 좋고 훌륭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거절의 요점은 사역에 약간의 좌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좌절을 겪을 때, 그들은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반응이 오만함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에 따르면, 예수의 사역과 열두 제자의 비전은 모두 잘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 많이 듣기 시작했고, 열두 제자를 보낸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분위기를 더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헤롯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 듣고 매우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모든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업을 하고 있는 열두 제자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저를 7절로 이끌어 헤롯이 예수의 정체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끎니다.

9장 7절에서. 이제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니 당황하여.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니 당황하여.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 한 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말했습니다. 요한아, 나는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예수를 보고자 했다. 헤롯은 무서워서 예수를 보고자 했다. 역사가들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헤롯, 분봉왕이라고도 불리는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일 것이라고 연대를 통해 상기시킨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겉보기에 예언적인 행동에 위협을 느끼는 정치 지도자를 발견합니다. 헤롯이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소문이 그를

괴롭힌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소문을 듣는 것을 특징지을 때,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여전히 예수의 사역을 더 광범위한 예언적 전통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인가 아닌가? 그는 선지자 중 한 명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은 그를 매우 걱정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으로, 그 예언적 전통과 망토로 왔다고 말하는 세례자 요한인가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자신을 붙잡고 말합니다. 오, 하지만 사실, 요한, 나는 참수했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그것은 더 무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인물들이 죽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널리 퍼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실제로 훨씬 더 큰 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이 그런 가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그런 가정을 했다면, 그것은 그를 더욱 두렵게 할 것입니다. 헤롯에 대한 이 질문에서 네 가지 빠른 사실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지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할 왕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는 자신의 지리적 관할권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과 권위와 함께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향력은 때때로 지리적 관할권을 통치하고 운영하는 정치 체제보다 더 강력하고, 더 도구적이며, 더 변화적입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원한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권력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둘째, 헤롯은 예수의 정체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의 소문과 추측인 것처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말하는 것도 거의 루가의 언어로 되어 있고, 예언적 예수라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헤롯은 예수가 예언적 전통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대중적인 관찰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사실, 그가 요한, 엘리야, 그리고 몇몇 예언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적어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유대인 역사에서 예언적 인물로 여겼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누구 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를 거의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동안 루가가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이 광범위한 문화적 관점에서 선지자의 사역으로 인식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아기 이야기에서 요한과 예수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 사람은 오직 루크라는 사람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루크라는 인물 묘사에서 요한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 가장 높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누가는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대중적인 관점에서도 매끄러운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메아리를 주는데, 이는 말라기 3장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한 기록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북쪽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메시아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탐구이며, 그것이 그것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수께서 선지자의 영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가 보는 것 중 하나는 선지자 전통에서 거칠고 강한 언어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행위로 그들의 사역을 입증하십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사역을 계속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군중을 먹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사역을 위해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붙잡아 두세요. 그는 여기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은 예언적 전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절로 넘어갑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일은 10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도들은 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데리고 베싸이다라는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마을의 위치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긴 이야기이고, 거기서 해결해야 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숙제를 줄게요. 구글링하면 돼요.

성경 e러닝 사이트에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1절.

군중이 그것을 알고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치유를 원하신다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가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변 마을과 시골로 가도록 무리를 보내십시오.

숙소를 찾고 식량을 구하려고. 우리는 여기 황무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은 말했다 .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네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음식을 사오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리니. 이는 약 오천 명이었음이니라.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50명 정도씩 그룹으로 앉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 모두를 앉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군중 앞에 앉으라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았을까? 남은 것은 주워 모았다. 깨진 조각이 담긴 열두
바구니. 이 기록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마태와 마가는 루가를 따릅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루가는 마가를 따릅니다
. 그리고 마태도 마가를 따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요한만이 오병이어가 어린
소년에게서 취해졌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마치 이것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요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미를 코끼리로 만들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는 5천 명의 남자를 먹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몇 아이들이 있었다면 아이들은 세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몇몇 여성들이 있었다면 여성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대 유대 문화권에서는 공개 강의에서 대부분 남성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께서 배고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선언문에서 그의 사역에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실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는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3.

우리는 예수께서 믿는 사람이나 그를 찾아온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보면, 오천 명을 먹이는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어진 신학적 구성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분 후에 이 중 일부를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경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선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사역의 명성이 너무나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장면의 중심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배고프고, 가야 할 때인데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그들을 먹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제발, 이것 바로잡읍시다.

제가 잠깐 멈추면, 저는 조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빼고 복음의 선포에 집중합니다. 또는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빼고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다룹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에 대한 기대 없이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세 가지가 모두 함께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나사렛의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예수께서 조심스럽게 꺼내신 사역의 구체화입니다.

그가 말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의 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잡한 사역 전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의 전체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들을 구체화하여 그의 사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

넷째, 5,000명을 먹인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믿기 위해 들어야 할 말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치유의 측면에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수단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는 그들의 음식에 대한 육체적 필요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병이어와 두 마리의 물고기가 당신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것이지만, 저는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내게 주면, 저는 아침 식사로 전부 다 먹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하지만 예수께서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12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이 먹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먹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또는 그 단어들은 번역될 수 있었고, 그들은 배불렀습니다.

루크는 그들이 배고프고 작은 간식만 제공할 수 있었다고 당신이 믿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와서 그의 감시를 받는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었다고 당신이 믿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남은 음식이 있을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상징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 남은 음식 12바구니는 무엇의 상징 인가요 ? 지금까지 이 강의 시리즈에서 관찰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큰 상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명의 제자나 사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남은 조각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12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바구니는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개의 바구니를 운반하고 다시 가져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상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상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명이 나가서 물건을 따서 모두 모아서 12개 바구니가 모두 가득 찼다면, 실제로 얻는 것은 12개 바구니입니다.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온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목회에 오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이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견학을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12개의 바구니와 5개의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구성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세부 사항을 해독할 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이 논의에서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먹이신 방식이고, 역사적으로 특히 루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 먹이는 성찬례나 최후의 만찬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일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후의 만찬 이전에도 예수께서 이미 어떤 성찬 전통을 시작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모릅니다.

저는 이 전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누가가 생각한 것이 그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취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더 신학적인 논의로 만듭니다.

결의와 삶,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요한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가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가 그것을 성찬례와 연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전통이 이것을 친교나 성찬례와 연결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들은 누가가 빵을 취했다, 축복했다, 쪼개고, 주었다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찬식의 일부로 이해됩니다. 당신이 가톨릭이나 오톨로스 전통에 속해 있다면 때때로 이러한 메아리가 표면화될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무리 지어 기대는 언어도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루가는 그것이 50명의 무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확실히, 1세기 후반에 이미 이와 같은 시험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이미 그것에서 나오는 것들 중 일부를 어떻게 신학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다케는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초기 교회 교리문답이나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다케 9에는 이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감사에 관해, 즉 성찬례에 관해, 그리스어로 Eucharistia ,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라고 읽습니다.

첫째, 잔에 관하여,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쪼개진 빵에 관하여,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영광은 영원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아리를 찾는 곳을 보십시오. 이 깨진 빵이 언덕 위에 흩어졌을 때, 당신은 여기의 언어가 최후의 만찬 배경에서 벗어나 더 넓은 문화적 또는 더 넓은 사건 시나리오로 옮겨져 5,000명 정도가 언덕 위에 흩어져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교회가 땅 끝에서 모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과 권능은 영원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감사인 성찬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도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기록과 함께 5,000명을 먹이는 것과 관련된 성찬례 주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용하지 않고, 실제로 더 설명하지 않고 주석을 집어든다면,

교파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특히 디다케 시험을 취하고 그것을 성찬례 텍스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왜 여러분의 관심을 이러한 특징에 끌어들이기 위해 시간을 내고 싶어하는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분께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을 때, 헤롯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그것을 붙잡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고, 그래서 마치 누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사역에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제자들에게로 바로 갑니다.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군중은 나를 누구 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 한 명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체성 문제가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와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었을 때, 제자들은 사실처럼 보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갈릴리 전역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예언적 용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가 누구인지 아는 듯합니다.

재빨리, 이 요점을 꺼내보겠습니다. 여기의 맥락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고독한 기도의 맥락입니다. 군중과 함께 하는 맥락이 아닙니다.

이 폭로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예언적 전통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역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인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인자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이제 그는 그들의 기대를 뒤집어엮을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뒤집을 것이기 때문에 인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21절 그는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자, 곧 그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잃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들이 있느니라. 인자가 오셨느니라. 그러나 인자는 그들의 전통적인 기대를 뛰어넘을 비전통적인 일을 하러 오셨느니라.

인자가 오셨고 그의 사역에는 고난이 포함됩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오는 승리의 메시아, 강력한 전사로 와서 나라들을 물리치고 지리적 영토를 차지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인자는 사헌 드린 에 의해 배척당해야 합니다. 그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종 산헤드린, 즉 유대인 의회를 구성하거나 그 일부인 유대인 지도부 구성원들에 의해 배척당해야 합니다.

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인자는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예수와 사도들 사이의 사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방금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옳게 식별했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언약의 사역자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받고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적도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급진적인 제자도에 초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주장하십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종 로마 법학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운명입니다. 수치와 당혹감의 상징입니다. 굴욕의 상징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고 싶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루가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를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그것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한 약속이 온다. 그는 사람의 아들에 대해, 사람의 아들은 그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의 증인이 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온 목적에 대한 대중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말씀입니다. 그분은 만약 여러분이 나와 동일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는 왕국에서 여러분과 동일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 그는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심각하고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부끄러워할 공간을 준다면, 그들은 그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루가는 때때로 영어로 영광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를 재빨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영어 단어 glory는 일종의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Glory를 읽을 때마다, 거의 오, Glory와 같습니다. 마치 대머리에 반짝이는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불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 그것이 영광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수치와 명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인 doxa는 또한 명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그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는 거기서 당신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그를 존중한다면, 그는 거기서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우리가 그의 정체성을 보는 것처럼, 이 특정 강의에서 그의 정체성이 펼쳐지면서 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이 특정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분이 열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질병을 고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가 실제로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사역을 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사역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헤롯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혼란은 또한 대중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존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정체는 공중에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예수는 열두 제자를 보낸 분입니다. 예수는 여전히 헤롯이 묻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하고 병을 고치고 오천 명을 먹이는 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사적인 시간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묻는 사람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밝혔을 때, 그는 이제 인자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특정 부분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시도함으로써 끝맺습니다. 그것이 제자도가 급진적인 패턴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 그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그는 참된 제자로 설 사람들을 존중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땅에서 그의 이름으로. 감히.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누가 우리의 관심을 예수의 사역으로 이끄는 방식과, 특히 이 강의에서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그의 사역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그저 일어나서 마실 차 한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고통과 다른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기독교가 고통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그 가르침의 타당성을 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독교 사역이 모두 이러한 예언적 치유 사역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쳤다면, 저는 또한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인가 당신이 고통이나 시련을 겪는 것이 여전히 당신을 좋은 기독교인으로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면, 당신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루크가 여기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또한 그분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따르라고 권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예수와 열두 제자, 루가 9장 1-27절입니다.